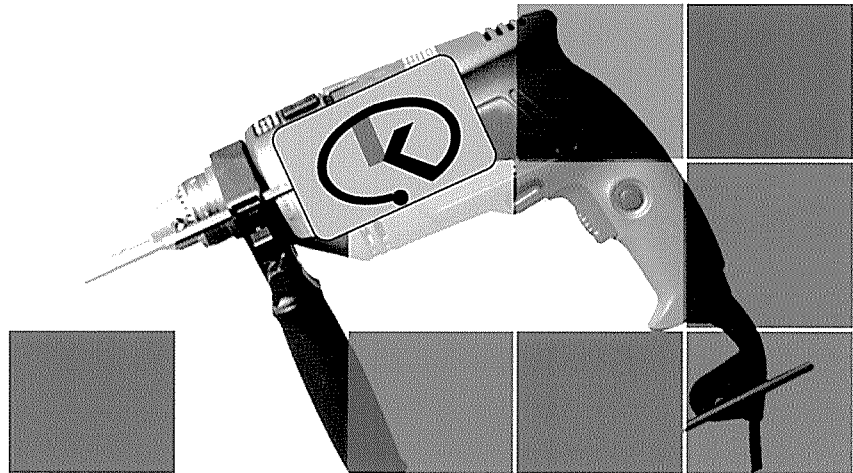


# 불법 전동공구류 수입업체(8개) 고발조치”

전동공구류에 대한 불법제품 특별단속 실시,  
8개 업체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함



-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(원장 金惠琬)은 '05.10.10~10.28간 전기드릴, 전기톱 등 전동공구류에 대한 불법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동공구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8개 업체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.
- 전동공구의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1,300억원 규모로서 이중 약 50%가 수입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, 금년 9월말까지 품목별 수입현황을 보면 전기드릴이 1,800만불(38%)로 제일 많이 수입되었고, 다음으로 전기톱 550만불(11%)이 수입되었다.
- 기술표준원에서는 불법·불량 수입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검사 및 불법제

품 단속을 할 계획이며, 연말 까지 최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맛사지기(일명 발육조기 등)에 대하여도 일제 단속을 가질 계획임.

- 이번에 불법제품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전동공구류는 최근 들어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전기용품으로 사람이 직접 조작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전사고 등 위험이 있다. 특히 소비자도 화재·감전 등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불법·불량전기용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전기용품 구입 시에는 항상 전기용품안전인증마크 (Q)가 있는 제품을 확인 후 구입하여 불법·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였다.

〈 참 고 자 료 〉

전동공구류 수입현황

품 목	수입규모(백만불)		비 고 (국내시장규모)
	2004년	2005년(1~9월)	
전동공구류			1,300억원(추정)(전체시장)
전기드릴	29.7	18.2	• 계양전기: 500(38%)
전기톱	9.1	5.45	• LG산전: 100%(8%)
기 타	27.4	24.5	• 기타(10): 50(4%)
(전기햄머 등)			* 시장규모의 약 50%가 수입제품
계	66.2	48.1	

\* 무역협회 통계자료

특별단속 현황

○ 단속 결과

(개사)

대상품목	조 사 결 과			
	대상업체	인증미필	소재지불명	비대상 품목
전동공구류	142	8	57	77

○ 조치 내용

- 고발 : 안전인증 미필업체 8개사
- 소재불명 업체 57개사(제조사)

※ 문의 :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 
배승진 과장, 최형욱 주무관(509-7235)